

“5·18때 北침투설 근거없어 억측과 왜곡은 꼭 사라져야”

5·18묘지 참배 前 5·18특별수사본부장 최환 변호사

1995년 전두환 구속기소...최선 다한 수사 ‘임...행진곡’ 국회 결의했으면 처리했어야

“5·18당시 북한군 침투설은 어떤 근거도 없었으며, 지금이라도 희생자 암매장 장소를 제보받는다면 발굴 작업을 못할 것도 없다”

5·18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최환 변호사는 5·18기념재단 초청으로 19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첫 참배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환 변호사는 “5·18 수사 당시 북한군 침투설에 대한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95년 서울지검 장 제직 시절 5·18 특별수사 본부장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날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5·18 역사 왜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수사관으로서 5·18 역

사왜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분명한 여러 추측이 있는데,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억측과 왜곡은 사라져야 한다”며 “민주화를 위해 몸 바친 분들을 추념하기 위해 찾은 것도 있지만 5·18과 관련된 법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왔다”고 피력했다.

그는 입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지난해 국회에서 (5·18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됐다. 국회는 민의의 전달으로, 여기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5·18 당시 암매장 장소와 최초 발포명령자 문제와 관련해선 “발포 명령자는 당시 사건 기록에 거의

다 나와 있다. 처벌받은 분들이 물적 증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의문은 지워졌으면 한다”며 “1995년~1996년인가 당시 그 얘기 (암매장)를 듣고 난 뒤 직접 현장에 가서 땅을 다 파보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 암매장 장소를 제보한다면 못할 것은 없다”고 다소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자료·증거부족으로 진실규명을 못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당시 12·12와 5·18 등 큰 사건 세 개를 한꺼번에 진행 했는데, 다소 증거부족이나 의견을 달만한 부분도 있다”면서 “다만, 5·18이 민주화를 위한 열정과 충정이 모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5·18 정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5·18 정신과 열정은 그대로 이어져 국민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 불필요한 루머나 억측은 이제 잠들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5·18과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추모탑에 헌화·분향한 뒤 “입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인 윤상원·박기순 열사의 묘소 등을 둘러봤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최환(사진 오른쪽)변호사가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함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이충행기자 mjna@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7분 해질 18시 44분 달출 22시 18분 달몰 08시 26분

미세먼지 '약간 나쁨'

바람 강해 시설물 관리 주의 필요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5/11℃
목포	맑음	5/10℃
여수	맑음	8/13℃
나주	맑음	5/11℃
완도	맑음	6/11℃
구례	맑음	6/13℃
강진	맑음	6/11℃
해남	맑음	6/11℃
장흥	맑음	5/12℃
순천	맑음	8/14℃
영광	맑음	5/11℃
진도	맑음	6/10℃
전주	구름많음	5/12℃
군산	맑음	4/11℃
남원	구름많음	5/12℃
옥산도	맑음	6/8℃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날씨						
최저/최고	2/11	0/14	4/16	5/16	7/15	6/16

광주 창의산업·문화역량 세계화 '시동'

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 제출

광주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19일 유네스코 본부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분야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가입 신청서에 '광주가 지닌 광산업·인권·예술의 빛을 미디어아트와 결합해 광주의 현대적 문화예술 이미지와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고, 새로운 창의산업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을 담았다. 광주의 미디어아트 관련 경험과 지식, 역량을 회원 도시들과 적극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전달했다. 이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면 미디어아트와 연관된 관광업, 영상문화콘텐츠산업, LED 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 협력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제 사회에서 공인받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식 로고를 사용할 수 있어 광주시 홍보와 해외 도시간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미디어아트가 빛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빛의 도시' 광주의 이

미지를 살릴 수 있는 미디어아트사나 예술 조형물을 공공건축물에 설치하는 시범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광주시의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여부는 오는 11월28일 결정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잠재력을 문화, 공예 및 민속예술, 음악, 디자인, 미디어아트, 미식, 영화 등 7개 분야 가운데 하나의 분야로 특화해 관련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은 물론 해당 도시의 고유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로 발족한 기구다.

취업준비생 절반 '졸업유예'

스펙쌓기·불안감 등 이유 유예비용 평균 24만원 씩

대졸 또는 대학 재학중인 취업준비생 가운데 절반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졸업을 유예했거나 앞으로 유예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3.2%(594명)가 '졸업유예를 한 경험이 있거나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졸업을 유예하느라 대학에 지출한 비용은 평균 24만원으로 집계됐다.

졸업유예자가 많은 전공은 경제계열이었다. 경제계열 전공자(211명) 가운데 60.2%가 졸업을 유예했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계열(59.3%), 사회과학계열(54.7%), 이공계열(53.6%), 예체능계열(37.6%) 순이었다.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로는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50.8%),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6.1%), '기업이 졸업생을 기피해서'(45.3%) 등을 꼽았다.

교장에 폭력 휘두른

고교 교사 직위해제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은 19일 교장과 동료 여교사에게 폭행을 휘두른 광주 모 고교 S교사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교장·교감·여교사에 대한 조사 결과, S교사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S교사는 지난해 12월24일 광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학생지도 방식을 놓고 다투다 교장과 교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여교사에게도 중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S교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도 이 폭행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가해와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상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사고·자공고 첫 평가

퇴출 여부 가려진다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개교한 지 4년 만에 처음으로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퇴출 여부가 가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 주 각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자공고 평가 지표를 보내 시·도교육청별로 평가 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것이다.

평가 대상 학교는 2010년 3월에 문을 연 자사고 25개교(서울 14개교, 지방 11개교), 자공고 21개교(서울 7개교, 지방 14개교) 등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평가지표는 법정 법인전입금 납입, 입시위주 교육 및 선형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 등으로 구성됐다.

각 시·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 다음 달 중 평가단을 구성해 실제 평가를 수행한다.

/연합뉴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